

거주와 건립에 관한 한 고찰

A Study on Dwelling and Building

강 혁

(경성대학교 건축도시학부)

1. 들어가는 말; 현대건축에서 거주의 위기

건축 혹은 건립의 본디 목적이 넓은 의미의 거주함에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연한 이 사실이 현대 건축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은 고급한 문화현상이나 경제 활동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 예술적 성취나 재화로서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인간의 거주는 관심 바깥으로 밀려난다. 특히 매체(media)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건축의 이해가 시각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일개 미학적 대상으로 소비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건축가들도 사는 집으로이기 보다 작품으로서 건축물을 짓는 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건축에서 건립(building)과 관련하여 거주(dwelling)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근대는 건립과 거주 사이의 괴리가 극대화된 시기, 혹은 건축에서 건립이 주된 과제가 되면서 거주는 망각되고 소외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기술 지배와 자본 지배, 도시적 삶으로 특징 지워지는 근대성이 야기한 인간 정주방식의 근본적 변화, 사물 제작방식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세계 인식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 조금 초점

을 좁히면 근대와 더불어 도래한 건축 자체의 위기, 그리고 건축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변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 들어 건축이 본래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물화되고 대상화했음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이다.²⁾

집은 “살기 위한 기계”(machine for living in)라는 유명한 언명은 근대와 더불어 건축의 의미, 집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그 비유는 합리적 이성으로 대변되는 ‘제작의 정신’이 건축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³⁾ 집이 일개 제작된 사물로 환원되면서 만드는 이와 건축물, 그리고 사는 사람, 이 3자간의 본래적인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대신에 건축물은 고상한 예술 작품이 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 소비되고 유통되는 도구 혹은 재화가 되었다. 근대적 상황이 초래한 미증유의

1) 근대에서 사물화 현상과 사물의 의미 변질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벤야민이 일찍이 설파한 바 있다.

W.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Production",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역, 민음사, 1936(1983), pp. 197-231

2)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대표적 저서로서 페레스 고메즈의 것을 들 수 있다.

A. Perez-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1983

3) “살기 위한 기계”라는 유명한 언명을 한 르 꼬르뷔제는 근대의 산업에서 건축의 새로운 정신을 발견하며 거기서 시대의 문제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발견한다.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역, 동녘, 2002(1924)), p. 27

거주의 위기에 모더니스트들은 기계적인 생산 방식을 모방한 대량 건립을 통해 타개해 나가고자 했다. 근대 기술과 결부되어 건립은 건축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⁴⁾ 거기에는 물리적인 건립이 인간의 거주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거주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진정한 거주'는 더욱 불가능한 것이 되고 있다.

현대건축의 담론에서 거주는 거의 거론되지 않는 주제이다. 건축물은 거주의 장소이기 보다 미학적 오브제이거나 이미지, 언어나 기호 혹은 텍스트로 간주되어 분석되곤 한다. 나아가 최근 신 전위 건축가들은 거주의 포기나 폐기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⁵⁾ 한편 최근 정보화, 세계화, 영상화가 추동하는 유목적 생활 양식이 오랜 정주의 습속을 대신하는 대안적 거주 방식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현대건축에서 소외된 거주의 본래적 의미, 거주와 건립의 관계를 이론적 조명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현대 건축의 현실을 반성해 볼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한다. 흔히 생각하듯이 건립과 거주가 인과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건축(건립)의 진정한 의미를 거주에서 찾아야 할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거주나 건립이 좁은 의미의 주거를 넘어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존재론적이고 문화적인 사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4) 그러므로 건축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근대 건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이며 모든 모더니스트들의 중요한 화두였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들의 구성주의라는 말에서 우리는 건축의 건립을 통한 사회의 재건(집짓기)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건축에 부여하고 있음을 본다.

근대 세계의 구성 원리로서 기계론적 세계관, 합리적 이성과 관련된 '제작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마무라 히토시가 잘 설명하고 있다.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6(1999), pp. 101-144

5) 피터 아이젠만부터 쿵 험펠부라우에 이르기까지 이런 태도는 광범위하다. 현대의 거주의 현실에서 그들의 극단적인 작업은 그만한 근거가 있다. 거기에는 근대 이후의 달라진 사물의 의미, 기능, 재현, 실재와 가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주의 차원을 소개할 때 계속 건축이라 불러야 하는 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P. Eisenman, "Visions of Unfolding: Architecture in the Age of Information", in [AD], Vol.62, No. 9/10, 1992, pp. 11-13

P. Eisenman, "the End of Classical: The End of the Beginning, the of the End",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by K. M.Hays, The MIT Press, 1998(1984)

먼저 건립과 거주에 관하여 언어적, 신화적 분석을 통하여 그 양자간의 시원적 사고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근대의 위기를 거주의 위기로 통찰한 하이데거의 정주의 사상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유목의 시대에 거주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레비나스의 사상을 빌어 여전히 건립을 통한 거주가 필수적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건립으로서 건축과 거주

영어 architecture의 한자 번역어인 건축(建築)이란 말은 근대화 과정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⁶⁾ 한자어-建과 築-는 유독 건립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서 라틴어 본디의 '으뜸가는 기예', 혹은 '근본적인 제작'이란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오히려 한자어 건축은 영어의 빌딩(building)에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건축이 고급한 예술이며 건축가가 으뜸가는 제작자(architect)였던 서구의 문화 전통과⁷⁾ 건축이 영조(營造)이거나 조영(造營)이었던 동아시아의 전통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術(technique)로서 서구가 아니라 제도이자 기율(discipline)로서 서구의 건축과 동아시아의 영조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거주(dwelling)를 마련하는 집짓기(building)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동서와 고급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와 문화들에서 공히 발견되는 동일한 활동이기도 하다.

사실 서구에서 건축(architecture)과 건립(building)의 구분, 혹은 건축과 건물(building)의 구분은 꽤나 문제적인 이슈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건축이 더욱 우월하고 특권화된 용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보다 고급한 것으로서 기념비적이거나 예술적 성격을 구비한 건물을 지칭한다. 건물+a가 건축인 것이다.⁸⁾ 이러한 인식의 습성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속

6) 문화, 과학, 공간, 시간, 미술 같은 말이 다 그러하다.

7) 서구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자면 건축은 건립의 기예(the art of building)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기술(techné)로 간주되었고 여타 문화권과 달리 일찍이 자율적인 문화 예술의 영역에 속할 수 있었다.

8) 저명한 사학자인 램스너는 [유럽 건축사 개관]의 서문에서 자동차 창고는 건물에 속하고 링컨 대성당은 건축에 해당한다는 유명한 단정을 내린다. 존 러스킨도 예술적 장식이 가미된 건물만이 건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근 미학자인 스퀴러턴도 [건축 미학]에서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다.

에도 깊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급한 건축이 건립에서 비롯되며- 혹은 의 존하며-, 비록 특별한 건물로서 건축(물)을 가능케 하는 질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건립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건립은 건축에 우선한다⁹⁾. 즉 건립이 더 근본적이다.

그래서 건축은 고상한 문화 예술 행위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짓기, 혹은 집짓기이다. 그리고 집 짓기의 본래의 기능은 다른 무엇에 앞서 인간의 거주를 제공하는 일이다. 짓기(building)와 거주(dwelling)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영어 building은 동명사이면서 명사이기도 해서 짓는 행위이자 그것의 결과로서 지어진 집(건물)이기도 하다. 거주에 관한 한, 건립이나 건물 같은 한자어에 비해 우리말인 집이나 집짓기가 훨씬 거주의 진리를 잘 담고 있다고 보인다.

우선 우리말 '집'은 사물로서 집(house)과 가정 혹은 가족으로서 집(home)의 뜻을 함께 가진다. 우리의 인식 속에 물리적인 집과 그 안의 삶(거주)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집은 주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주택을 뜻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집이기도 하다. 온갖 제도와 시설을 담은 건축물을 집으로 부르는 것은 집이 건축의 시원(始原)이어서일 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거의 반드시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거주 없는 건축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¹⁰⁾ 나아가 우리가 사는 마을, 도시, 민족, 국가도 하나의 집으로 비유된다.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집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혹은 자연도 또 하나의 집이다. 심지어 우주마저도 집 宇, 집 宙인 것이다. 사유 가운데 유추, 혹은 은유를 통하여 집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그 모두에 거주한다는 일이 공통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거주하는 일 자체가 바로 사는 일이며 존재함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은 쉽게 수긍된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 유명한 언명은 뒤집어 이해해야 한

다. 그 말은 언어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양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어를 집에 비유한데서 하이데거는 집 또한 언어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집짓기의 짓기라는 우리말도 흥미롭다. 물론 집 짓기의 짓기는 건립(building)이 되지만 글짓기, 시 짓기에서 보듯이 그것은 글쓰기, 만들기의 뜻으로도 쓰인다. 그 짓기란 말은 영어 architecture의 라틴어 어원인 techne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예를 뜻하는 테크네는 제작(poiesis)을 의미하며 창작으로서 poiesis는 어원상 시짓기(詩作; poetry)를 지칭한다. 이러한 말뜻의 유사(相似)가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는 않는다. 짓기, 혹은 건립으로서 건축이 단순히 구조물의 축조를 뜻하기보다 더 포괄적인 만들, 혹은 으뜸가는(archi) 만들이며, 그것은 바로 지상에 '인간의 세계'를 세우는 일, 즉 지상에 인간의 거주처-삶의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 어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잊혀지거나 변질된 언어의 본디의 뜻은 그것에 관한 근원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 짓기와 거주를 둘러싼 말들의 심상치 않은 연관성은 건축의 이해가 무엇보다 먼저 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사태의 본질에 관한 속 깊은 내용을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것으로 기원의 서사를 들 수 있다. 서구에서 이천 년 가까이 건축의 정전으로서 건축적 사유와 담론의 수원지 역할을 해왔던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 제 2서 1장은 주거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주에 관한 유의미한 사과의 단초를 제시해 준다.¹¹⁾

비트루비우스에 의하면 날 것을 먹으며 야생 동물과 같이 살아가던 선사 시대의 인류들이 불을 발견하고 이용할 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자연발생의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불이 꺼져갈 때 제공해준 따듯함은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게 했다. 불의 쾌적함을 서로에게 알리고 그것을 보존 이용하기 위하여 뜻 모를 개인의 소리는 집단적 소통의 도구인 언어로 바뀌어야 했다. 이렇듯 한 장소에로의 인간의 회합과 교류는 불의 발견에서 비롯된 것이

9)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한 예로 그리스 신전의 역사적 변천을 들 수 있다. 그리스 족장의 거처인 메가론은 보통 주거 건물(domestic building)에 그 기원을 두면서 훗날 기념비적인 종교 건축인 그리스 신전(temple)으로 진화한다.

10) 오직 기념비만이 거주가 없다. 그래서인지 유독 다른 건축물에는 집이란 말을 붙여도 기념비는 집으로 부르지 않는다. 기념비의 고유한 건축적 특성에 대해선 강혁, [이상건축], 2001. 03, "기념비성과 기념비 주의" pp. 82-89 참고

11) M. Vitruvius Pollio,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rans. by M. H. Morgan, N.Y., Dover Publication, INC., 1914, pp. 38-39 (오덕성 역, [건축 10서], 기문당, pp. 51-52)

었다. 직립한 인간은 손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의 재료를 변형하여 피난처(shelter)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인간 본디의 모방과 학습 성향으로 축조의 기술과 방식은 점차 개량돼 가면서 인류는 더욱 진보된 주거를 짓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비트루비우스의 '원시 오두막'(primitive hut)에 대한 설명의 개요이다.

신화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이 최초의 집(first house)에 관한 -그리고 건축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한 줄거리 속에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그는 공동체의 발생과 언어의 생성, 그리고 집(건축)의 탄생을 함께 다루고 있다. 불은 인간을 모이게 하여 사회의 형성을 초래했으며, 사물의 이름을 공동으로 부를 필요는 언어의 생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살아갈 주거가 필요했다.¹²⁾ 그 최초의 주거의 건립은 단순한 물리적 피난처가 아니라 집단 공동의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니, 거주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 즉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었다. 불을 중심으로 삼는 집짓기는 공동체의 중심을 마련하는 일로 바로 의미 있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에 다름 아니다.

한편 집의 건립은 인간의 만들(지음)을 통하여 달성되는 데, 숲을 제거하여 땅을 평평히 다지고(clearing)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을 쌓고 기둥과 지붕을 올려서 바깥과 구분된 내부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집짓기(building)는 수직(하늘)과 수평(땅), 중심과 주변, 안과 밖, 그리고 경계라는 원초적인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신성한 의식(ritual)이 된다. 직립한 인간이 집짓기를 통해 경이로운 우주와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 맺는 방식인 것이다.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은 비트루비우스의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주거의 기원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인간의 더불어 살아감, 즉 거주함의 발생과 동시적인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듯 거주 양식과 결부하여 건축(집)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비트루비우스의 신화는 먼 훗날, 그러니까 170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전기 근대(pre-modern) 시대에 여러 건축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원시 오두막'의 설화들과는 커다란 차

이가 있다. 비트루비우스의 신화는 '사물로서 건축(주택)의 재현이 아니라 거주함을 일구고 지탱해가는 장소의 일으킴에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 근대 초기의 여러 이론가들이 원시 오두막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건립(building) 그 자체, 즉 물리적인 축조나 조합의 논리, 혹은 형태의 구성이나 그 원형 같은 것에 집중되었다.¹³⁾ 달리 말하자면 합리화 혹은 추상화의 방법을 통해서 집짓기에서 삶(거주)을 제거한 형식화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독 유물론자 내지 결정론자로 간주되곤 하는 고트프리트 쟬퍼(G. Semper) 만이 짓기와 거주를 하나로 묶어서 문화로 파악하려는 이론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집(건축) 본디의 전체 상을 지키고자 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쟬퍼는 1851년 '건축의 4요소'(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Die Vier Elemente der Baukunst)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것은 건축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집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일종의 유형학적 시도였다.¹⁴⁾ 거기에서 쟬퍼는 건축의 근본을 주거에서 찾고, 모든 건립된 형태들을 구성하는 유형(type)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네 요소를 제시한다. 그 첫째가 집의 중심으로서 화덕 혹은 난로(hearth)이다. 둘째가 둔우워진 바닥(mound or platform) 혹은 하부구조(substructure)이다. 셋째는 기둥에 의해 들어 올려진 지붕(roof)이다. 마지막 넷째는 내부 공간을 둘러싸는 울담(enclosure or wall)이다.¹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트루비우스와 흡사하게 그가 집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로 난로를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주거를 성립시켜주는 근거로 물리적인 축조의 요소를 드는 게 일반적인 당시의 경향에서 난로, 즉 불을 제시한 것은 뜻밖의 일이며, 쟬퍼만의 차별성이다. 그가 보기에 불은 인간을 가정과 종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온갖 사회

13) 이들 전기 근대의 원시 오두막에 대한 사상과 이론들에 대해서는 리크워트가 잘 기술하고 있다.

J. Rykwert, [On Adam's House in Paradise],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14) 그러나 쟬퍼의 방식은 여타의 이론가들의 추론과 상상에 의한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인류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15) H. F. Mallgrave, [Gottfried Semper, Architect of the Nine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 Press, 1996, pp 177-189

12) R. D. Dripps, [The First House; Myth, Paradigm, and the Task of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pp. 5-18

제도를 발생시킨 씨앗이고, 승배의 장소로서 제단의 원천이기도 했다.¹⁶⁾ 그는 불을 더불어 함께 함의 상징이며 인간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기에 주거 생성의 가장 주요한 핵으로 본 것이다. 정신적인 중심인 불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피난처로서 물리적인 집을 이루는 나머지 세 요소가 포진하여 가장 긴요한 삶의 요구들에 부응하면서 주거를 형성하게 된다. 즉, 둘째 요소인 바닥은 땅에서 돋우어져 불을 보호하며 기단이나 테라스 같은 평평한 면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가 된다. 셋째 요소인 지붕은 그것을 엮어 올리는 기둥과 함께 집의 구축(tectonics)을 담당하면서 하늘을 덮고 하부의 불과 인간을 보호한다. 넷째 요소로 기둥 사이를 둘러치는 울(enclosure)은 비구조적인 천이나 담요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추위와 바람을 막고 안의 사적인 생활을 보장한다.¹⁷⁾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쟈퍼의 네 요소들은 각각의 다른 네 가지 고대의 기본적인 제작의 방식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화덕은 도자기와 금속 기술을 낳고, 지붕은 목수의 구조적인 축조술로, 바닥은 테라스로 진화하여 조적으로, 울은 피륙술로서 공간을 둘러싸는 표면의 장식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그에게 집짓기는 단순한 구조체의 세움이기 보다 다양한 제작 방식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호 엮여서 적용되는 종합적인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쟈퍼의 이론에서도 주거, 혹은 건축을 단지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보기를 거절하고 삶(거주)과 집(건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읽는다. 혹은 근대에 들어서 분리되어 가는 건립과 거주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본다. 당시는 이미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건설 기술과 재료들이 등장하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논리의 근거를 런던 엑스포

에 전시되어 있는 카리브해 지역의 오두막에서 확인하거나, 그가 주거의 기원을 추구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건축과 거주의 본질을 되물어야 할 상황에 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근대 들어서 닥친 건축의 위기, 즉 짓는다는 것과 산다는 일이 괴리되면서 그 양자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물어보고 다시 정립되어야 할 사태에 건축가들은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론가로서 탁월함은 과거의 권위에 기대거나 결정론, 또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거주와 짓기의 관계를 통찰하려 했다는 점이다.¹⁹⁾

우리는 쟈퍼에게서 거주가 주거(건축)의 원점이라는 것, 주거와 건립은 동시적 현상이며 거주를 떠난 건립은 허구라는 것, 거주의 내용은 삶의 맥락이 그러하듯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것, 거주는 필연적으로 집짓기의 방식-즉 축조 혹은 건설 기술-과 관련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쟈퍼의 이론을 따라서 거주를 건축의 근원적인 바탕으로 이해하는 한, 건축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고급 예술이나 물리적인 건립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반과 관계하는 폭넓은 활동이 된다. 건축이 문화에 뿌리 박고 있으며 의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다른 무엇보다 거주라는 차원 때문이다.

3. 하이데거에게서 건립과 거주

근대성은 집(건축)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물과 인간 상호 간에 가꿔왔던 친근하고 내밀한 관계를 파괴했다. 집은 과거 지녔던 고유한 분위기와 신비로움을 상실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거주의 위기를 근대성이 초래한 위기 속에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일어날 경우이다. 근대에 거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향 상실과 뿌리 뽑힘은 근대인의 존재 양식이다. 그는 이를 가리켜 “안주할 곳이 없음”(Unheimlich, Unhomly)이라고 불렀다. Unheimlich는 Heimlich의 반대말로 접두사 Un이

16) G. Semper, "The Basic Elements of Architecture" in [Gottfried Semper, In Search of Architecture], by W. Herrmann, Cambridge, The MIT Press, 1984, PP. 198-201

17) 그러면서 쟈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다른 주거 형식으로 둘러싼 벽으로 이루어진 마당과 홀로 서있는 집인 오두막을 들고 있다.

18) 이런 이론적 관점에서 건축 양식과 고대의 건축들이 런던 강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G. Semper, "London Lecture of November 11, 1853" in [RES] N.6, Fall, 1983, pp. 5-31

19) S. Anderson, "The Presentness of Interpretation and of Artifacts", in [History in, of, and for Architecture], ed. by J. E. Hancock, Cincinnati, U of Cincinnati, 1980, PP. 49

붙어서 된 말이다. Heim은 독일어로 집(home) 혹은 고향이며, 형용사 Heimlich는 “친밀한, 낯설지 않은, 길들여진, 내면의, 요람의”라는 뜻이며, “안락하고 둘러싸인 집이 가져다주는 편안한 휴식과 보호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감각이다. 근대인의 삶의 양상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강조하는 현실 속의 인간(Dasein)의 실존적 모습인 불안과 소외는 바로 Unheimlich, 즉 진정한 거주를 상실한 자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그는 근대에서의 거주와 위기, 상실을 경고하고 망각된 거주와 참뜻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가 쓴 유명한 에세이 “건축, 거주, 사유”(Building Dwelling Thinking)는 이런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²¹⁾ 흔히 건축하는 이들이 그것을 건축에 관한 텍스트로 읽고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일생의 사유의 주제인 존재의 진정성(authenticity), 혹은 본래성의 회복 문제를²²⁾ 그와 관련된 핵심적 사안인 거

주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거주는 단순하게 집, 혹은 건축물에서 사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과 자연,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방식, 즉 존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거주와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양상이 우리의 집에서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고, 집의 건립이 곧 거주함의 발생이기에 그의 글은 건축의 본질에 대해 깊은 시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보기에 오늘날 ‘거주와 곤경’은 주택 부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주택은 더 싸고 편리하고 밝으며 유지 관리도 쉽다. 그러나 현대인은 오늘날 건물에 단지 거할 뿐이지 진정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거주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거주와 참 뜻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그 원인을 근대에 들어서 한층 두드러진, 존재에 대한 테크놀로지적 이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과학 기술적 지배에 돌린다. 그러한 삶의 태도와 생존 방식은 인간을 단탈하고 한 방향으로만 몰아세워²³⁾, 아주 특별한 사물인 집과 인간이 맺어야 할 의미로운 관계, 집과 더불어 인간이 존재해야 할 본래적인 삶의 모습을 파괴하고, 집을 한낱 물품으로 전락시킨다. 그러한 현상은 근대 문명의 총화인 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그는 도시를 혐오하고 평생을 산골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보냈다.²⁴⁾ 그러나 그는 자연에 산다고 진정한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고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야말로, 고향에서 추방된 자들(도시민들) 보다 훨씬 고향을 상실한 자들”

20) 하이데거는 근대인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과 고향을 상실하고 한낱 일상인, 세인(Das Man)이 된 데에는 테크놀로지의 세계 지배, 즉 이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기술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그럴 때 인간의 세계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진 균질한 공간이 된다.

21) 이 에세이의 독일어 제목은 “Bauen, Wohnen, Denken”이며 [숲길](Holzwege)라는 평론집에 실려있다. 영어로는

M.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by A. Hofstadter, NY, Harper & Row, pp 145-161

M. Heidegger, [Basic Writings], ed. by D. F. Krell, Harper Collins, pp. 343-363

한글 번역은 조희철 교수가 술츠의 [근대건축의 근원(공간 예술사)의 번역의 부록으로 영문 번역과 함께 실어놓았다. pp. 239-250

22) 우리는 진정성이나 본래성을 어떤 불변의 상태나 이상적인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서 진정성은 현재의 비본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본래의 자기의 의미로움을 찾기 위해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에서 발견된다.

건축에서의 진정성을 오해할 때 그것은 형식주의나 유형론으로 나아가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때 C. Norberg-Schulz가 “진정성있는 건축을 향하여”에서 그것이 인간을 ‘거주할 수 있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점은 옳았으나, [주거의 개념]에서 추상적 기능주의 건축의 대안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상적 건축’(figurative architecture)을 제시한 것은 빈곤한 처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C. Norberg-Schulz, “Toward an Authentic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zoli, 1988, pp. 197

C.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NY, Rizzoli, 1985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23) 획일화된 기술지배의 세계는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면 모든 존재자들을 몰아 세우는 세계(Ge-stell)이다. 이를 이기상 교수는 ‘단탈’로 번역하고 있다.

M.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Basic Writings], pp 343-364

W. Biemel, “알레테이아와 기술의 본질”, [하이데거], 신상희 역, 한길사, 1973(1997), pp. 205-233

24) 그는 일찍이 베를린 대학의 초빙에 대해 “창조적인 풍광; 왜 우리는 시골에 머무는가”라는 글로 거절하고 있다. 이는 후기 하이데거의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과 “하늘과 대지 그리고 신의 품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소박한 삶”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난다.

박찬국, [하이데거와 나치즘], 문예출판사, 2001, pp. 141

M. Heidegger, “Why Do I Stay in the Provinces?”, in [Listening 12], no3, 1977, pp. 122-124

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주와 관련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현재의 거주와 관련하여 그는 먼저 건립과 거주와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집짓기를 수단으로 삼고 거주를 그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양자를 분리된 활동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사고의 습성이 양자의 본질적 관계를 볼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먼저 잊어버린 원초적인(primordial) 거주와 의미와 관련하여, 거주한다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방식임(being=dwelling)임을 강조하고, 독일어로 건립을 뜻하는 bauen의 어원에서 보듯이 그것이 곧 거주하는 일이자 존재하는 일이기도 함을 밝힌다. 즉 건립이 바로 거주함에 다름 아니며 (building=dwelling), 또한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²⁵⁾ 그런데 거주로서 건립(building as dwelling)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 하나는 건물을 세우는 일로서 건립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돌보고 가꾸는²⁶⁾ 일(경작)로서의 건립이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거주와 건립이 본디 별개의 일이 아니라 동시적이며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협소한 뜻으로의 집짓기와 거주하기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즉 존재 양식)을 말함인데, 곧 인간의 만드는(제작) 행위와 자연과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거주로서 건립'을 통해 인간이 이 세계, 혹은 이 세계의 사물과 생명들과 의미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주와 건립의 근본적인 특성은 평화로이 머무는 일이며, 아끼고 보전하는 일이 된다. 그것이 훗날 단순히 짓고 세운다는 뜻의 건립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거주와 분리되면서 건립의 진정한 의미, 즉 거주와 본뜻은 망각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건립의

본성이 무엇인지 물음을 던지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거주하는 이들하기에 건립해왔고, 지금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이 건립, 곧 거주이기를 그치고 한갓 짓는 기술이나 방편으로 타락했다는 하이데거의 비판을 듣는다).

하이데거에게 '거주로서 건립'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오직 건립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살아 갈만한 의미로운 장소, 즉 안식과 평화가 보장되는 안정된 거주와 자리로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참된 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흔히 사방(四方), 사역(四域)으로 번역한다.)를 열거한다. 죽을 운명인 유한한 존재인 인간, 그가 그 위에 머무르는 땅, 그것을 덮는 하늘, 그리고 신성한 신들이 바로 그것으로, 그 넷은 거주 가운데 일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거주와 내용으로 제시된 이 사방의 사상은 이해가 쉽지 않아 얼핏 상징적인 표현처럼 들린다.²⁷⁾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거주와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사는 인간이 운명의 불가사이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신들에게 기원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주변의 자연 혹은 사물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것들과 합일된 관계를 맺는 삶의 모습을 일컫는다.²⁸⁾ 하이데거가 보기에 그러한 본래적인 삶이 진정한 거주함이며, 그것은 거주의 동의어인 건립을 통해서 가능한 데, 그러한 거주와 장소가 바로 고향이라는 것이다.²⁹⁾ 이 때 고향은 구체적인 삶의 장소로서

27) 우리는 그의 사방에 대한 사상과 공간과 장소에 대한 현상학적 사고가 일찍부터 [존재와 시간]에서 마련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거기서 인간(현존재)과 사물, 도구와 공간에 관한 관계가 자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M.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by J. Macquarrie, Harper Collins, 1962(1927), pp. 134-148

28) 배학수, "하이데거와 건축", [하이데거와 자연, 환경, 생명], 한국 하이데거학회편, 철학과 현실사, 2000, pp180-182, 여기서 배학수 교수는 거주함을 진정한 삶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이데거의 사방의 기술과 연관시킨다. 반면 박찬국 교수는 "인간이 자신이 성장하는 고향의 하늘과 대지를 집수하는 존재"로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으로 사방을 풀이한다. 양자 간의 간격이 크지는 않다.

박찬국, [하이데거와 나치즘], pp. 240-244

29) 하이데거는 사후 공개된 슈피겔지와와의 대답에 "모든 본질적이고 위대한 것은 오로지 인간이 고향을 가지고 있고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데서 생겨났다"고 말한다.

25) C. Dilnot는 하이데거가 건립을 거주와 일치시키고, 거주와 현존재(Dasein)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으로 '사유'한 데서, [건립, 거주, 사유]의 비범성을 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거주와 건립의 분리, 건립과 건축의 괴리 문제를 따진다.

C. Dilot, "The Decisive Text: On Beginning to Read Heidegger's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Harvard Architectural Review 8], N.8, 1992, 161-187

26) 이용하되 뒤달하지 않는 것을 하이데거는 돌보며 가꾼다고 표현한다. 경작은 사물을 돌보며 가꾼다면 기술은 사물을 몰아세워 물품으로 이끌어낸다.

나의 집, 내가 사는 마을, 도시이기도 하고, 때론 그것의 확장으로서 내 민족, 내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주하는 자이며 건립하는 자이다. 진정한 건립이 곧 진정한 거주이며 진정한 삶이다. 오늘의 건축의 위기, 혹은 거주 상실은 건축의 근원이 건립임을 망각한 데서, 그리고 건립하는 일의 본 뜻이 거주함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경고는 부인하기 어려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거주함의 본질을 물음으로써 아주 특별한 사물인 집(건축)과 인간이 맺는 근본적 관계, 달리 말하자면 집(건축)을 통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 오늘날 어떠하냐고 묻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이라면 거주와 건립의 괴리가 우리 시대의 거주 실상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의 거주 위기는 인간과 “사물들과의 일치 상실”³⁰⁾이며, 그것은 건축을 건축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인간의 소외, 자연의 소외, 환경의 소외, 신성의 소외라고 풀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 특유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오늘의 건축은 ‘사방’(하늘, 땅, 신들, 인간)을 거주로서 한 데 ‘모으지’ 못하고 타자화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립을 통해 거주하지만 ‘진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집 없음’(homelessness)은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의 실상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거주의 진정한 끈경’은 우리가 “거주 상실”의 사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주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한 (온전한) 거주를 위해 거주 본성을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하이데거는 “건립, 거주, 사유”의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건립이 어떻게 거주함을 발생시키는 지 다리와 검은 숲의 농가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대지를 가로지르는 물살 위에 다리가 건립됨으로서, 그것은 땅과 물살과 양쪽 독을 연결하여 새로운 사물들간의 관계를 만들고 대지와 하늘 아래 새로운 경관을 열어 보인다. 그것은 인간에게

길을 터주어 오고가게 하며, 통과라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감사와 신비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다리는 건립됨으로서 다른 사물들을 모아들이고 거주함을 발생시킨다.³¹⁾ 이 때 건립은 대지 위에 구체적인 위치를 가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며, 그 공간(Raum)은 건립과 거주를 위해 치워져서(clearing) 비워진 곳³²⁾, 그래서 경계가 지워지고 그 안에 사물들이 모이는 장소(place)인 것이다. 그러한 건립은 단순히 “장소를 점유하는 일이 아니라 장소를 건설하는 일”이 된다. 그것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배제된 추상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take place) 사태이다.

우리는 흔히들 추상 공간이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거주와 삶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반대로 구체적인 장소 내에 일부로서 추상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이는 측정가능성과 계산가능성을 앞세워 추상적인 방식으로 구축하는 근대적 건립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그가 보기에 공간은 인간이 대면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외적 대상도 내적인 체험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 고유의 방식으로 공간 내에 실존하며, 그것이 바로 거주이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위치 및 공간과 맺는 관계는 인간 거주에 고유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립으로서 거주는 필연적으로 장소의 문제가 되며, 땅을 닦아 빈 공간을 만들며, 방의 조성(making-room)이며, 사물의 드러남과 현전(presence)이며, 귀속(belong to)이며, 지역(region)과 지방성의 열음이자 보전인 것이다.³³⁾

31) 여기서 건립은 그가 [예술작품의 기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 신전의 건립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늘과 대지와 인간과 신들의 관계가 그러하고, 신전 건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임’(gathering)과 ‘열림’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주(삶)는 건립으로서 예술(제작=시지움)과 통하고 여기서 그의 “시적인 거주”의 의미가 납득된다.

M. Heidegger, "The Origin of the Work of the Art", in [Basic Writings], pp. 167-169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 민형원 역, 경문사, pp108-111)

32) 공간(Raum)은 “인간의 정주와 거주를 위하여 자유와 개방성을 가져다주는 치움(clearing-away; Raumen)’을 어원 상의 미한다.

M. Heidegger, "Art and Space", trnas. by C. H. Seibert, in [Form; Being; Absence, Architecture and Philosophy, Pratt J. of Architecture], V. 2, Rizzoli, 1988, pp. 10

33) "Art and Space", pp 10-11

M. Wigley, "Heidegger's House: The Violence of the Domestic" in [cba], V.1, NY, Rizzoli, 1992, pp. 105 ([Der Spiegel: Interview with Martin Heidegger], PP 56)

동일한 대답이 박찬국, [하이데거와 나치즘]에 실려있다. (pp. 441)

30) "Building Dwelling Thinking", pp 353

4. 근대의 거주 상실과 집 없음, 그리고 섬뜩함

하이데거의 에세이는 과연 오늘날 진정한 거주와 건립이 가능한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근대성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부정과 비판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거주 상실에 비추어볼 때, 그가 건립을 통한 거주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이데거가 우리로 하여금 거주와 건립에 대하여, 나아가 현대건축 전반에 대하여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사유를 따라가자면 거주의 회복은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문제가 된다. 그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 자신은 다만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귀기울이며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축가는 당장 집을 지어야 하는 자들이다. 건립을 포기할 수도 없고, 거주를 포기할 수도 없다.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건립을 통해 (진정한) 거주를 회구해야 마땅할 것 같다. 우리는 노버그 숄츠의 건축현상학과 실존적 공간 이론이 하이데거의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잘 안다.³⁴⁾ 하이데거에 입각해 숄츠는 건축이 진정한 건립, 즉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장소 만들기'(place-making)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지상에서 인간의 의미 있는 거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은 거주의 구체적 현장을 떠난 근대의 추상적인 집짓기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한편으론 오늘의 척박한 현실에서 볼 때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보수주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한편 근대건축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근대성의 그늘을 인식하고 현대건축의 사물화, 도구화, 상업화를 비판하는 케네쓰 프랜턴도 하이데거에게서 적지 않게 기대고 있다. 그가 세계화에 저항하는 건축으로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를

지지하고, 건축의 비속화에 대항하여 구축적 문화(tectonic culture)를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하이데거의 거주와 건립에 대한 사유와 바로 일치한다.³⁵⁾ 우리는 비슷한 태도를 그레고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⁶⁾ "어떤 대지가 존재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물들", 그 사물들의 형성이 바로 건립이라는 하이데거의 생각은 바로 건축을 '대지 작업'(earthwork), 그리고 '땅의 원초적인 조성'으로 파악하는 그레고티와 상당 부분 통한다.³⁷⁾ 이러한 접근은 건립으로서 거주를 외면한 채 한없이 가벼워져만 가는 현대 건축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주와 관련해 하이데거의 텍스트는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의 텍스트를 지나치게 건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거주를 가능케하는 건립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³⁸⁾ 하이데거는 거주가 단순히 거처를 마련하는 일(take the shelter)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온전히) 거주한다면, 시적(詩的)으로 거주한다고 말한다.³⁹⁾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건립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데 있다. 우리는 진정한 거주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다.

35) K. Frampton, "On Reading Heidegger", in [Opposition 4], 1974

K. Frampton, "Perspects for Critical Regionalism", in [Perspecta 20], 147-162

k.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1995, pp. 21-27

36) 이점에서 볼 때 이들은 비판적 이성을 존중하는 합리주의적 전통과 하이데거의 거주의 현상학을 접목시키려는 어려운 작업을 시도하는 셈이다.

37) K. Frampton, "Forward" in [Inside architecture], by V. Gregotti, MIT Press, 1996, pp.17

38) M. Wigley는 집과 장소와 부지와 현전을 문제시하는 하이데거의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한 채, 건축 이론가들이 건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텍스트를 읽어왔고 보수적인 실무를 합리해왔다고 지적한다.

M. Wigley, "The Architectural Displacement of Philosophy" in [Form: Being, Absence, Architecture and Philosophy, Pratt J. of Architecture], 1988, V2, pp 4-5

M. Wigley, "The Domestication of the House" in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 Derrida's Haunt], Eambridge, The MIT Press, pp 97-121

39) 고대어에서 건립(building; techne/tectonic)은 제작(poiesis)이자 시짓기(poetry)인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산출)이며 곧 거주를 현전케하는 일(이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시적인 거주에 대해서는

M. Heidegger, "Poetically Man Dwells", in [Poetry, Language, Thought], pp. 214-222

34) C. Norberg-Schulz,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1980

C.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NY, Rizzoli, 1984(이재훈역, 태림문화사)

C. Norberg-Schulz, "Heidegger's Thinking on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zoli, 1988

(그러므로 거주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근대의 기술 지배와 메트로폴리스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거주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집에 대해 말하자면 거기서 우리는 안식하지(feel at home) 못하므로 우리는 집에 머물러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은 어디에나 있느냐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그에 의하면 근대 테크놀로지가 초래한 공간의 소멸, 거리의 소멸은 거주를 위한 내부, 경계라는 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주에서 생겨나는 사물과의 ‘친밀함’과 ‘가까움’과 ‘보존’이 허용되지 않는다. 테크놀로지는 사물들을 소외시킨다. 근대의 위기는 진정한 거주에 대한 욕구로서 ‘향수’(homesick)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즉 집(거주)의 상실이라기 보다 집에 대한 요구의 상실이다. “인간이 거주하기를 멈추는 데서 집 없음(homelessness)이 생겨난다.”⁴⁰⁾ 그래서 우리의 집(house)이 바로 우리의 집 없음(homelessness)의 현상이 된다. 우리의 집(house)은 집이 되 더 이상 집(home)이 아니다⁴¹⁾. 거주 상실은 근대인의 현존재적 사태이지 건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주자가 되기 못하는 한, 진정한 건립은 없는 것이다. 우리 건축가는 단지 짓는 자일뿐이다.

이렇게 보면 하이데거와 대척점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축사가 타푸리의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 하이데거와 그다지 멀지 않다. 그는 집 없음이 근대에서 거주의 적나라한 실상이라는 것을 직시한다. 다만 그는 하이데거가 지닌 진정한 거주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기에 그는 근대성이 초래한 거주의 상실을 건립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믿는 건축가들의 헛된 기대 혹은 자기 기만에 가혹하게 비판적이다.⁴²⁾ 타푸리가 미스를 높

이 평가하는 것은 근대 테크놀로지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거주를 무화시키면서 성실하게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타푸리에 공감하는 철학자 동료 마쎌모 카치아리가 보기에 근대성의 본질은 바로 집 없음이다. 오늘의 대도시의 현실에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사방을 모으는 거주는 불가능하다. “거주와 건립이 통합된 그런 집은 과거의 것이 되었고 이제 그러한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⁴³⁾ 거주와 건립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화해시키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러한 존재를 담은 집은 사라졌다. 이제 집은 잠시 동안의 거처에 불과하다.⁴⁴⁾ 근대에서, 대도시에서 사람 모두는 세입자이거나 하숙인이다. ‘거주의 부재’ 혹은 “시적이지 않은 거주”가 근대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대도시는 거주가 추방된 곳이고 비거주(non-dwelling)가 본질적인 특징이 된다.⁴⁵⁾ 근대건축과 도시의 역사는 근대적 상황 안에서 거주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대장정이었다. 그것은 위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주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가는 거주의 환상을 포기하고 그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가운데 그 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여야 한다. 일찍이 거주(oikos)가 가능하지 않음을 간파한 아돌프 로스가 택했던 침묵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고,⁴⁶⁾ 미스의 침

대한 회망이 바로 유토피아이고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메트로폴리스에서 실현될 수 없는 무망한 기대이다. 그의 짧은 책자는 그 좌절의 역사적 분석이다.

M.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Cambridge, MIT Press, 1979(1973)

43) M. Cacciari, “Eupalinos or architecture” in [Opposition 21], The MIT Press, 1980, pp 112

44) 본질적으로도 주거는 다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존재인 인간에게 잠정적인 거처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세계 자체가 거주처인 데, 근대에 들어 그것이 살만하지 않은 낯선 거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카치아리에게 이 시대 진정한 거주는 머무름이 아니라 여행, 혹은 방랑(wayfaring)이 된다. 하이데거도 거주가 곧 행로(path)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철학자 카치아리는 거주의 문제에 대해 하이데거를 진지하게 참조하고 대결한다.

M. Cacciari, “To Dwell, to Think” in [Casabella 662/663], Milano, 1999, pp. 6-7

45) 짐멜로부터 푸코에 이르기까지, 혹은 카프카에게서, 이런 주제가 철학과 문학에서 수도 없이 언급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46) M. Cacciari, “House” in [Architecture and Nihilism: on the Philosophy of Modern architecture], ed. by P. Lombardo, Yale

40) M. Heidegger,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trans. by R. Manheim, New Haven, Yale U. Press, 1959, pp.167

M. Wigley, “Heidegger’s house”에서 재인용, pp. 97

41) 집(home)과 주택(house)의 분리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하이데거와 정반대로 근대 주거의 기술지배적 현실을 인정하고 근대적 거주 형식을 증명하는 레이너 뱌헨은 집은 주택이 아니라고 말한다.

R. Banham, “A Home is not a House” in [Meaning in Architecture], ed. by G. Baird & C. Jencks, NY, George Braziler, 1969, pp. 109-118

42) 타푸리가 보기에 근대 건축가들의 이러한 거주의 회복에

목이 또한 그러했다. 니체를 따르는 카치아리의 허무주의적 태도는 건립과 거주의 긍정성을 작업의 원점으로 삼고 있는 건축가들에게 자기 부정으로 비치어 당혹스럽다. 그러나 근대적 상황 내에서 건축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건축에게 허용된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일런지 모른다.

5. 거주 대 유목, 혹은 거주로서 유목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 영원한 집이란 없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인간은 영원히 고향을 그리워하며(homesick; nostalgia) 그것은 또 하나의 자궁인 무덤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집은 불완전한 주거이며 잠시 머무는 거처일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상의 주거는 떠남과 회귀의 공간이며 그 자체가 길(path)이기도 하다. 모든 집이 길과 연결되어 있음은 머물음 뿐 아니라 집 떠남 자체도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임을 가르쳐 준다.

하이데거의 '건립으로서 거주'는 정주의 사상이다. 그것은 종교학자 조나단 스미스의 용어를 빌자면 "방위설정의 지도"(locative map)라는 세계 이해와 삶의 태도이다. 그것은 울타리 치기, 경계 긋기, 한계선 만들기이며 정착과 뿌리박음의 문화이다. 그 질서잡힌 공간 내부에서 인간은 우주와 신과 사회와 조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얻는다. 반면 그가 "유토피아적 지도"(utopian map)라고 칭하는 것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탈출하려는 태도이다. 질서의 내부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고자 한다. 전자와 후자는 구심적/원심적, 단합/열립, 밀집/분산, 정태적/역동성이라는 대조적 특성을 보인다.⁴⁷⁾ 스미스는 양자가 역사적으로 동시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근대에서 와서 유토피아적 지도가 더 현저한 경향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근대에서 거주의 상실은 곧 바로 유목과 통한다.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성의 본질은 정주가 아니라 이동, 그리고 유목이다.

존재의 집에 거주하는 하이데거의 정주의 철학

이 게르만의 '숲의 사상'이라면 유태인의 출애굽기(Exodus)는 '유목의 사상'이다.⁴⁸⁾ "나의 고향을 떠나라"는 신의 명령에 따라 오랜 거주의 자리(고향)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지상의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서 천막이다.⁴⁹⁾ 이렇듯 유목은 정주와 대립되는/병존하는 존재의 양식으로 정주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오랜 농경 생활 끝에 인류는 새로운 유목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는 인간을 땅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유목이 시작된 것이다.⁵⁰⁾ 그것은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고향 상실인 것만큼이나 삶의 자유와 가능성을 가져다준 변화이기도 하다.

근대의 교통과 통신이 가져다준 공간 의식의 개변과 이동의 확대는 탈근대 시대에 들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양상을 옮겨가고 있다. 매트르폴리스는 점차 정주의 공간이 아니라 비정주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으며, 장소적 차이는 소멸하고 있다. 이곳과 저곳의 차이의 사라짐은 모든 곳을 임의의 장소(anywhere, anyplace)로 바꾸어 놓고 있다. 시공간의 압축과 거리의 소멸, 실재와 가상 사이의 경계의 소멸도 일상적인 경험이 되었다. 이미지와 기호의 편재, 복수(複數)의 공간의 현전, 거주 공간으로 정보 미디어와 인터넷의 침입 등은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어도 정신은 저곳에 거하는 일을 가능케 하고 있다. 거주의 동시화이자 분열인 셈이다. 지구 전체와 대도시를 둘러싼 망상의 교통망도 우리를 부단한 이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와 지하철과 비행기 안의 이동 공간이 제3의 거주 공간이 되었다. 이제 이동은 자연스런 거주의 양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목의 시대에 거주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집과 집 '사이'가 바로 거주 공간이

48) 아사다 아끼라, [도주론], 문아영역, 민음사, 1999(1984), pp. 85

49) 부처나 예수의 출가(집 떠남)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집의 안락함으로부터 탈주해 삶의 도약이나 초월을 기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50) 우리는 일찍이 근대건축에서도 유목적 삶에 대한 대응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꼬르뷔지에가 한 말, "만약 우리의 감성과 이성으로부터 주거에 관한 모든 죽어버린(낡은) 개념들을 몰아낸다면, 우리는 대량 생산 주거인 '주택-기계'(House-Machine)에 도달할 것이다."([건축을 향하여]) 여기서 낡은 주거의 개념은 바로 정주이다. 그것을 몰아내고 그가 만들고자 한 것은 근대 도시에 이동하는 대중을 위한 주거-기계인 것이다. 그것은 하이데거나 바슐라르가 혐오해마지 않은 도시의 어느 곳이나 세울 수 있는 동일한 집이었다.

U. Press, 1993, pp.175-178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로스의 건축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47) J. Z. Smith, [Map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 Leiden, E. J. Brill, 1978,

("인간과 관계된 것치고 낯선 법은 없는 법이다.", 장성만, [현대사상 7], 1999. 민음사, pp. 272-275, 재인용)

다. 집밖의 가로, 수송시설, 온갖 종류의 소비 공간과 상업 유흥공간, 그 모두가 거주의 공간이면서 또한 아니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정주가 주는 안정, 지속, 머무름 대신 잠정적임, 우발적임, 부유함이 우리 시대의 더 보편적인 감각이다. 현대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방인, 방문객, 망명자의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유목이 지배적인 삶의 양식이 되었음은 부인하긴 어렵다. 이미 현대인은 유목민이 되었다. 그것이 거주의 상실이고 집 없음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가지 유력한 대안은 하이데거를 따라 유목을 거주와 건립의 위기로 파악하고 장소로의 회귀, 수호의 입장을 굳건히 하는 일이다. 생태주의와 연대하여 지역을 지키고, 견고한 장소를 건립하여 거주 부재의 시대에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럴 때 건축은 낡은 세계의 지지자로서 보수성과 동시에 삶의 부박함과 비물질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진보성을 함께 담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와 무력함을 안고 싸우는 힘든 투쟁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목의 사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존재=거주(건립)=장소라는 도식에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유목은 정주가 옹호하는 내부와 중심과 동일성에 회의하고 외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도입해 그것을 해체하고자 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유목은 정주의 사유를 넘어 경계를 가로지르는 탈주의 사유, 횡단의 사유이다.⁵¹⁾ 뿌리박고 안정을 정초하려는 절망적인 욕망 대신에 경계 바깥으로 질주하며 새로운 땅과 만남을 시도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거주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태도를 요구한다.

유목의 사유를 따르자면, 고정되고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리고 교통하며, 새로운 무엇이 벌어지고 생성되는 공간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주의 모습이다. 거주로서 유목은 점으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선들이 교차하는 십자로 같은 것”이며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성의 모색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주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유목의 사유가 건립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거주의 공간인 고향/공동체가 섬이라면 유목의 공간이 해양이거나 사막이라고 비유한다. 해양 혹은 사막을 건너는 일로서 유목은 여행이며, 교환이고, 타자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⁵²⁾ 이러한 이동의 공간을 과연 거주의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과거의 안락한 정주지와는 사뭇 다른 낯선 유목적 공간에서 새로게 거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현대적 삶이 거주와 유목을 함께 사는 일, 혹은 거주가 동시에 유목이 되는 것이라면, 현대의 유목적 상황은 건축에게 가능성과 곤경을 함께 제공한다 하겠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유목의 시대의 도래가 정주의 전적인 포기인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6. 향유로서 거주

유목을 은유로 받아들이든 실제로 받아들이든 거주와 관련하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몸의 존재라는 사실이다. 몸을 조명함으로써 거주에서 이제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가장 근원적인 측면을 드러난다. 이 점에서 볼 때도 근대 건축은 주거에서 몸을 배제하여 거주를 소외시켰다.

하이데거에게 거주는 존재의 집으로서이다. 그것은 정신과 주체의 거주처이다. 그러나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보기에 거주는 그것에 우선해 몸을 둘러싸고 일어난다.⁵³⁾ 물론 신체도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지배와 조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몸에는 어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잠자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낮의 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밤의 거주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기 이전에 잠자는 존재이다.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은신처에서 우리는 잔다.⁵⁴⁾ 그것은 공동체 이전의 일이며 나의 의식과도

52) 가라타니 고진, “교통공간에 관한 노트”, [Anywhere], 현대건축사, 1998, pp. 177-179

53)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러나 그로부터 벗어나 동일성 대신 타자를 이야기하는 유대계 프랑스 현상학자이다. “세계를 거주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건립과 거주에 대한 그의 사유를 하이데거와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E. Levinas,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7(1979)

51) R. Bogue, [Deleuze and Guattari]([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역, 새길, 1995(1989))

신현준, “들뢰즈/가타리: 존재의 균열과 생성의 탈주”, [철학의 탈주], 새길, 1995, pp. 245-301

무관한 일이다. 잘 때 나의 주체성도 소멸하며 동일성도 사라진다. 구체적인 장소와 관계하는 일로서 잠자리에 누움은 “몸과 마음의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의 자리, 하나의 위치에 자신을 제한하는 일”이다.⁵⁵⁾

그러므로 거주로서 집이 하이데거에게 정체성의 근거지로서 고향이라면 레비나스에게 그것은 장소에 선행하는 잠자리의 공간이 된다. 그곳은 고정된 자리이며, 어둠의 공간이며, 풍랑 중에도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요나 콤플렉스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잠을 위한 거주의 공간은 요람이며 이불이며 방이며 무덤이다. 그 곳 모두가 근원적인 집인 것이다. 집은 어머니 태내-최초의 주거-의 대용품이라고 프로이트도 말한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느끼는 평화와 안온도 어머니 태내에서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새 둥지, 조개 껍질, 서랍이나 장롱 속과 연결되는 집의 무의식적 이미지이다.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프로이트와 통하고 바슐라르와도 통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주거에 대한 일상적 욕망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체적 욕구, 바로 자야한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것은 음식, 햇빛, 공기, 경치, 일, 생각과 마찬가지로 삶을 향유하는 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거주는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다. 삶을 사는 일로서 향유는 이론과 지식과 표상에 앞선다. 물론 레비나스에게도 거주를 통해 인간은 세계를 표상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은 향유의 주체라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거주공간으로서 집으로의 복귀를 ‘친밀성’으로 묘사한다.⁵⁶⁾ 부드럽고 따뜻하며 익숙한 친밀성의 공간인 집, 그것은 몸을 통한 원초적 거주의 경험이며,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요람, 이불, 방, 무덤에서 느끼는 평화와 안식의 감각이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의식이 ‘여기에 자리잡기’ 위한 가능 조건은 신체이다. 의식은 여기 이곳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계로 나아간다. 그러나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기에 자리잡기’는 먼저 자신에게 돌아옴이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은 자

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한 복판에서 자기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는 잠은 자리잡음으로 일어난다.” 인간의 내면으로의 전향은 잠을 통해 성취된다. 따라서 거주 공간은 잘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옴이다.

하지만 집에서의 거주는 향유만은 아니다. 인간은 ‘여기에’ 집을 짓고 거주하며 노동함으로써 자기의 주체성을 실현한다. 주체는 항상 육화된 주체이며, 스스로를 신체로 정립할 때 하나의 정연한 공간이 성립한다. 우리는 사유 이전에 신체로 집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한 집은 인간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조건이자 노동의 시작이다. 집을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지고 인간은 집을 통해 세계와 만난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집과 거주의 친밀성, 그 내면성의 공간은 여성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나(의 신체)를 받아들이는 타자, 나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너’와의 대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 수동적이고 연약하며 부드러운 여성적인 타자와의 만남에서 우리는 거주의 향유에서 전향하여 내면성을 획득하고 세계로의 관심을 돌리고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⁵⁷⁾ 거주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너(타자)의 존재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⁵⁸⁾

레비나스의 거주의 개념은 다른 무엇에 우선해 거주와 관련해 깊은 시사를 준다.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됐건, 유목의 시대가 되었건 잠의 공간으로서 거주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잠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잠이 거주함이라면-철학자 김용옥도 방은 잠이라고 말한다.-그것은 인간의 몸과 관련하여 본능적인 것이 된다. 사유에 억눌려 무시되었던 거주의 또 다른 차원은 몸과 더불어 회귀한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동이 잦아질수록 요람처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주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몸으로서 주체에겐 인공의 자궁으로서 내밀하고 친밀한 공간은 여전히 요구된다. 인간은 적어도 잠들 때는 유목할 수 없다.

7. 맺는 말

이상으로 건립과 관련하여 거주의 본질적 의미

54) 서동욱, “잠이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pp. 337

55) 강영안, “존재, 주체, 타자: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관하여”, [세계의 문화], 제 17권 4호, 1992, pp. 202

56)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문제”, [문학과 사회], N. 32, 문학과 지성사 1995, pp. 1539-1541

57) E. Levinas, [전체성과 무한], p. 129 (강영안, “향유와 거주”, p.1541)

58)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에 대해서는, 서동욱저, [차이와 타자],(문학과 지성사, 2000) 참고

에 대하여 탐색해보고 현대에서의 거주와 상황을 살펴보았다. 건립을 거주로 이해할 때 건축물은 분석적 독해의 대상이거나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는 일, 곧 존재하는 방식(way of being)이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한 간과는 현대 건축에서 거주와 소외를 낳고 동시에 건축이 삶과 유리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건립이 곧 거주라는 사실, 즉 건립함이 곧 거주함을 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은 건축이 결코 물리적 건립의 기술로 제한될 수 없으며 물적 대상을 넘어 그것을 둘러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거꾸로 대문자 A로 시작되는 오늘의 제도화된 건축(Architecture)이 미학적 대상물의 생산으로 축소되고 조작과 꾸밈의 기술로 전락한 이유를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거주와 건립에 대한 고찰은 현대 건축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하겠다. 건립의 사물적 측면과 더불어 거주와 존재론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아우를 때라야 건축은 비로소 본래의 위상을 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거주와 위기에서 기인하는 근대 혹은 현대 건축의 위기는 모더니티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기에 건축을 초과하는 문제임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을 통해 '진정한 거주'를 구하려는 것은 건축의 한계를 간파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근대 건축의 근본적 딜레마와 그것의 빛나는 성취와 한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리고 진정한 거주와 불가능성에 대응하는 아방가르드의 전략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단초를 얻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유목이 거주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주와 대립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청하는 또 하나의 거주와 방식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목의 시대에도 여전히 원초적 거주는 필요한 데, 그것은 우리가 신체의 존재이기 때문임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현대의 건립이 정주적 거주를 마련하는 일에 머물 수만은 없지만 동시에 그것을 아주 포기할 수도 없음을 보여준다. 유목적 거주가 거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건축의 관습적 전통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건립을 통한 거주가 몸과 관련해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현대에도 건축 본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가르쳐 준다 하겠다. 오히려 육화

된 거주, 그리고 건축의 구축성과 사물성은 더욱 소중한 가치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Production", in [Illumination],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역, 민음사, 1983(1936))
2. Alberto Perez-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1983
3.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역, 동녘, 2002(1924))
4.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역, 민음사, 1999(1996)
5. K. Michea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Cambridge, The MIT Press, 1998
6. M. Vitruvius Pollio,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rans. by M. H. Morgan, N.Y., Dover Publication, 1960(1914)([건축십서], 오덕성역, 기문당, 1987)
7. R. D. Dripps, [The First House],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8. Joseph Rykwert, [On Adam's House in Paradise],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9. H. F. Mallgrave, [Gottfried Semper, Architect of Nine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 Press, 1996
10. G. Semper, "The Basic Elements of Architecture" in [Gottfried Semper, In Search of Architecture], by W. Herrmann, Cambridge, The MIT Press, 1984
11. G. Semper, "London Lecture of November 11, 1853" in [RES] N.6, Fall, 1983
12. S. Anderson, "The Presentness of Interpretation and of Artifacts", in [History in, of, and for Architecture], ed. by J. E. Hancock, Cincinnati, U of Cincinnati, 1980, PP. 49
13. M.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by A. Hofstadter, NY, Harper & Row
14. M. Heidegger, [Basic Writings], ed. by D. F. Krell, Harper Collins

15. C. Norberg-Schulz, "Toward an Authentic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zoli, 1988
16. C.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NY, Rizzoli, 1985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17. W. Biemel, "알레테이아와 기술의 본질", [하이데거], 신상희 역, 한길사, 1973(1997)
18. 박찬국, [하이데거와 나치즘], 문예출판사,
19. C. Dilort, "The Decisive Text: On Beginning to Read Heidegger's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Harvard Architectural Review 8], N.8, 1992
20. M.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by J. Macquarrie, Harper Collins, 1962(1927)
21. 배학수, "하이데거와 건축", [하이데거와 자연, 환경, 생명], 한국 하이데거학회편, 철학과 현실사, 2000
22. M. Wigley, "Heidegger's House; The Violence of the Domestic" in [cba], V.1, NY, Rizzoli, 1992 [Der Spiegel; Interview with Martin Heidegger", PP 56)
23. M. Heidegger, "The Origin of the Work of the Art", in [Basic Writings]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 민형원 역, 경문사,
24. M. Heidegger, "Art and Space", trnas. by C. H. Seibert, in [Form; Being; Absence, Architecture and Philosophy, Pratt J. of Architecture], V. 2, Rizzoli, 1988
25. C. Norberg-Schulz,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1980
26. C. Norberg-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NY, Rizzoli, 1984(이재훈역, 태림문화사)
27. C. Norberg-Schulz, "Heidegger's Thinking on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oli, 1988
28. K. Frampton, "On Reading Heidegger", in [Opposition 4], 1974
29. K.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1995
30. K. Frampton, "Forward" in [Inside architecture], by V. Gregotti, MIT Press, 1996,
31. M. Wigley, "The Architectural Displacement of Philosophy" in [Form; Being; Absence, Architecture and Philosophy, Pratt J. of Architecture], 1988, V2
32. M. Wigley, "The Domestication of the House" in [The Atchitecture of Deconstruction : Derrida's Haut], Cambridge, The MIT Press
33. M. Heidegger,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trans. by R. Manheim, New Haven, Yale U. Press, 1959
34. R. Banham, "A House is not a House" in [Meaning in Architecture], ed. by G. Baiird & C. Jencks, NY, George Braziler, 1969
35. M.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Cambridge, MIT Press, 1979(1973)
36. M. Cacciari, "Eupalinos or architecture" in [Opposition 21], The MIT Press, 1980
37. M. Cacciari, "House" in [Architecture and Nihilism; on the Philosophy of Modern architecture], ed. by P. Lombardo, Yale U. Press, 1993
38. J. Z. Smith,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 Leidon, E. J. Brill, 1978, "인간과 관계된 것 치고 낮은 법은 없는 법이다.", 장성만, [현대사상 7], 1999. 민음사, 재인용)
39. 아사다 아끼라, [도주론], 문아영역, 민음사, 1999(1984)
40. R. Bogue, [Delueze and Guattari]([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역, 새길, 1995(1989)
41. 신현준, "들뢰즈/가타리: 존재의 균열과 생성의 탈주", [철학의 탈주], 새길, 1995
42. 가라타니 고진, "교통공간에 관한 노트", [Anyehere], 현대건축사, 1998
43. E. Levinas,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7(1979)
44. 강영안, "존재, 주체, 타자: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관하여", [세계의 문학], 제 17권 4호, 1992
45.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경제론", [문학과 사회], N. 32, 문학과 지성사 1995,
46. E. Levinas, [전체성과 무한] (강영안, "향유와 거주")
47. 서동욱저, [차이와 타자],(문학과 지성사, 2000)

A. Study on Dwelling and Building

Khang, Hyuk

(Professor, Kyungsoong university)

Abstract

Since Modern period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governing of technology and capitalism, the production and aesthetics of building became a main issue of architectural discourse. Moreover, Modern architecture tends to be a kind of media in which the visual image of building plays a far more important role than building itself. Institutionalized discipline of Architecture in modern system set aside the dwelling aspect of building and destruct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dwelling and building.

This study analyzes the essential meaning of dwelling with a viewpoint of building and vice versa in order to have a deep reflection o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modern crisis of dwell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reviewed linguistic and mythical narratives on the origin of dwelling and building. Secondly, reviewed the thought of Heidegger on dwelling and building and his thinking on authenticity of dwelling. Thirdly, reviewed drastic change of idea and reality of dwelling recent days, especially from settlement to nomad. Lastly reviewed E. Levinas' thinking on bodily dwelling or primordial mode of dwelling before poetic dwelling of Heidegger.

With these review we can figure out following things on dwelling and building. Physical building or its visual image can not take the place of dwelling in itself. Dwelling and Building happens simultaneously and understood as an event in life world. Today's alienation of dwelling from building reduced our conception of architecture to a physical setting and mere technique. Building must be a ontological and cultural phenomenon beyond physical building. Nomad in this age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may be a new mode of dwelling. But it can not exclude traditional way of dwelling on concrete space, because human being as a physical being can not abandon dwelling place that gives a primordial comfort with and within our body.